



湖月圖 金文國詩 茅宗敬書  
 此畫見於金文國詩中 茅宗敬書之筆  
 法 筆 為 湖 月 圖 之 款 者 則 當 民 自 述 也  
 湖 月 圖 之 款 者 則 當 民 自 述 也  
 湖 月 圖 之 款 者 則 當 民 自 述 也

스스로 많은 差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이 問月圖는 紙地淡彩畫로 衣服에는 淡靑을, 顔面과 手足에는 淡紅을, 口에는 若干 紅을 淡紅色을 設彩하였다.

以上으로 筆者로서는 처음 보는 灘隱 人物圖의 紹介를 끝내거나 日後 다시 어디서든지 灘隱의 山水圖나 人物圖같은 作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山마루터기 큼직  
 한 바윗돌 위에 비

스듬히 걸터앉아 中天에 뜬 이지러진 조각달을 치어다 보고 손을 들어 달을 가르키고 있는 高士의 모습이 孤高한 品格을 나타내고 있다.

이 問月圖는 얼른 보면 人物의 輪廓이나 衣褶의 線이 養松堂 金禔이나 駱坡 李慶胤의 筆致와 비슷한 느낌이 있으나 그것은 共通된 時代的 畫風의 影響일 것이며 一筆揮之로 그려진 듯한 이 問月圖의 高逸한 作風은 能熟한 山水人物畫의 作家인 養松堂이나 鶴林正의 作品과는

### 通德郎 權齊彥의 誌石

洪 以 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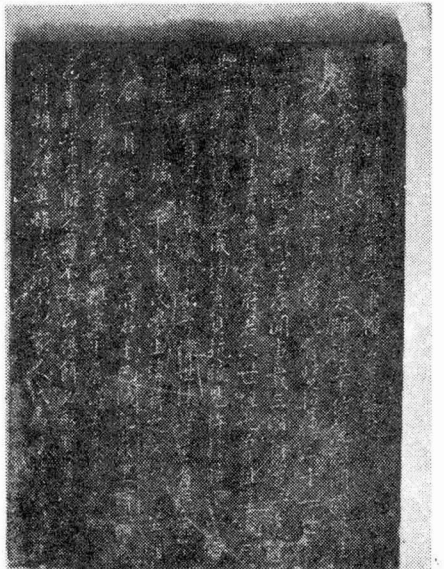
「通德郎 安東權公墓誌文」은 韓國近世思想史上 한 때의 心理的인 面을 알리는 興趣 있는 것이다.

이 誌石은 黑石(長三一·五cm 橫二二三cm 厚一·三cm)에 十二行 各行二十字의 雅趣 있는 行書體로 刻字되어 있다.

權齊彥은 英祖戊辰(西紀一七四八) 「巴陵孔巖里」(現陵谷陽川一帶)에 出生하였으며 黃德吉의 挽辭(下廬集卷之一挽權汝周齊彥 誌文에는 舟다)가 癸亥(純祖三年 一八〇三)作으로 됨을 보아 그 生卒을 짐작할 수 있다. 첫 장 한 장으로는 推得할 바가 없으나 黃德吉과의 同鄉 交友關係는 黃德吉이 權齊彥의 挽辭를 制作했을 뿐 아니라 「巴陵後浦」(下廬集卷之十九)에 실렸던 바로 알 수 있다. 誌文 第一張 裏面에,

：及 學生公歿，  
 遂不赴舉，近有一  
 種沉溺邪書者，府  
 君嘗戒不肖等，曰  
 古之異端，高明爲  
 患，今之異端，愚  
 賊胥溺，固可嚴斥  
 之，然斥之失其正，  
 是猶繼風而止燎  
 也

라 한데서 十九世紀後半 正祖 一代를



에 위산 西學排斥의 風潮를 엿볼 수 있으며 또 西學에 耽溺한 心情的 一端을 짐작하겠다. 權齊彥이 西學은 嚴斥하여야 하지만 그 正當性을 잃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은 純祖元年 辛酉(一八〇二)以後 西學 彈壓의 疾風속에서 南人 同色間의 相殘의 피비릿내를 끄리었던 것 같다. 不過 數十字의 이 文字는 正·純問의 異端論議의 心理의 一面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權齊彥의 誌文 한 장은 그 本文이 어디 傳하든지 間에 興趣 있는 것이다.

### 放射能에 의한 새로운 年代測定法

蔡 秉 瑞

客年 高大 博物館에서는 熊川貝塚出土의 炭片을 美國 미시간大學에 보낸 바 있다. 이것은 炭素一四에 依하여 該貝塚의 實年代를 알아내기 爲해서였다.

戰後 原子物理學의 눈부신 發達로 放射能世界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事實을 알게 되었다. 即 生命體를 構成하는 炭素는 宇宙線의 作用으로 五百年만 經過하면 모두 放射能을 갖게 되며 또한 이 放射性炭素는 溫度나 壓力等 周圍與件과는 無關코 一定한 速度에 依하여 崩壞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放射性炭素의 崩壞程度를 測定하면 이를 包含한 造物이나 遺蹟의 年代推定도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 精度가 千年을 單位로 할 程度이고 對象도 植物性造物에 限한다고 한다.

그런데 最新 外誌(朝日科學 第二十卷 第四號 一九六〇·四)에 依하면 近者에는 岩石이나 陶器를 加熱하여 年代를 測定하는 새로운 方法이 또 나타났다고 한다. 即 美國 加州大學 地球物理學研究所 G. C. Kennedy, Knopoff 兩教授가 美國科學促進協會에 報告한 熱 Luminescence (發光)에 依한 方法이다. 該誌에 紹介된 바를 다시 要約한다면 「材料는 普通 溶岩이나 陶器인데 이를 스스로 發光할 수 있는 溫度 가 가까이까지 加熱

하면 熱 Luminescence의 現象이 나타난다. 이것은 固體內에 간혀 있던 電子가 放出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物質中에는 반드시 放射性元素의 痕蹟量이 包含되어 있으며 이 放射能은 長久한 時日을 두고  $\alpha$ ,  $\beta$  粒子를 放出하면서 崩壞한다. 同時에 이들 粒子는 固體結晶中の 電子를 捕捉한다.」

그런데 「이 電子捕捉量은 試驗物質의 年代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即 오랜 物質일 수록 더 많은 電子를 捕捉한다고 한다.

Knopoff 博士는 이를 基礎하여 古代 아테네의 단지, 접시, 독, 술병 등 一六介의 陶片을 實驗한 結果 그 製作年代가 紀元前九世紀임을 밝혀 냈다. 이것은 歷史上의 年代와 完全히 符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方法은 炭素一四에 依한 四萬년에 比하여 더욱 過去 十萬 年前까지 遡及할 수 있고 手苦도 덜하다고 한다.

특히 對象이 考古學의 遺物中 가장 普遍性을 띤 陶器類라는 點에서 앞으로 이에 對한 期待는 매우 크다 하겠다.

### 公州出土의 土器 三點

劉 始 鍾

昨年 九月에 忠南公州郡 牛城面 寶興里 田壽鎮氏 發見의 土器 三點이 公州博物館에 入手되었다. 出土經緯는 雨後 沙汰로 斷崖가 된 洞里 甕山中에서 露出되었다고 한다. 其中 二點은 大小의 差는 있으나 같은 樣式의 土器이고 一點은 그 形態가 稀貴한 遺例로서 軟質灰色土器인 바 肩部는 緩慢한 勾配를 보이며 帶狀을 띠고 下部에 連續되고 있어 一見 神仙 爐같은 形態이다. 下臺部는 거의 缺失되어 臺高는 復原하기 어렵다.

이와 伴出된 土器 二點은 圓底球形으로 口緣은 위로 反轉되었고 肩部에 傾斜된 打線紋이 있고 一條의 陰刻線이 肩部로부터 出發하여 螺旋型으로 胴部 아래까지 回轉되고 있다.

前者의 形態가 青銅器와 類似함은 特히 注目되는 바이다.